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조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60호 [루체 제26034호] 주제 107 (2018)년 6월 9일 (토요일)

당의 령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을 돌아보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당파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리설주녀사와
함께 새로 건설
된 평양대동강
수산물식당을
돌아보시였다.



다고 평가하였는데 실지 와보니 정말 멋있고 특색 있다 고하시면서 식당의 이름을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으로 명명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외부와 내부의 모든 요소가 독특하고 정교하며 아름답게 시공된 식당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군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리수용동지, 조선로동당 위원회 간부들인 한광상동지, 리병철동지, 김여정동지, 김용수동지, 조용원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건설에 참가한 군부대

지휘관들과 해당 부문의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 현대미를 자랑하며 멋들어지게 일떠선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은 우리 인민에게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기 위해 그토록 마음쓰시며 인민을

위한 일에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다심한 은정에 의하여 마련된 또 하나의 특색있는 급양봉사기지이다.

최상의 봉사조건을 그흔히 갖춘 식당

식사실들, 가공품매대들이 꾸려져있어 우리 인민들의 구미와 기호에 맞게 펼펼 뛰는 여러가지 고급어족들을 즉석에서 료리하여 봉사할수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건설자들이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또 한가지 해놓은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옥류판과 같이 평양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인민봉사기지가 태어났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2면으로 계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을 돌아보시였다



1면에서 계속

영양가높은 수산물료리와 가공품을 손님들에게도 봉사하도록 할 때 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들이 무척 좋아할 것이라고 봉사받게 되면 좋아할 것이라고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위해 노력해나가야 한다고 하시 하시면서 식당개업과 관련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말씀하시였다.

수산물료리의 질을 높이는데

면서 식당관리운영과 봉사활동에 지시를 주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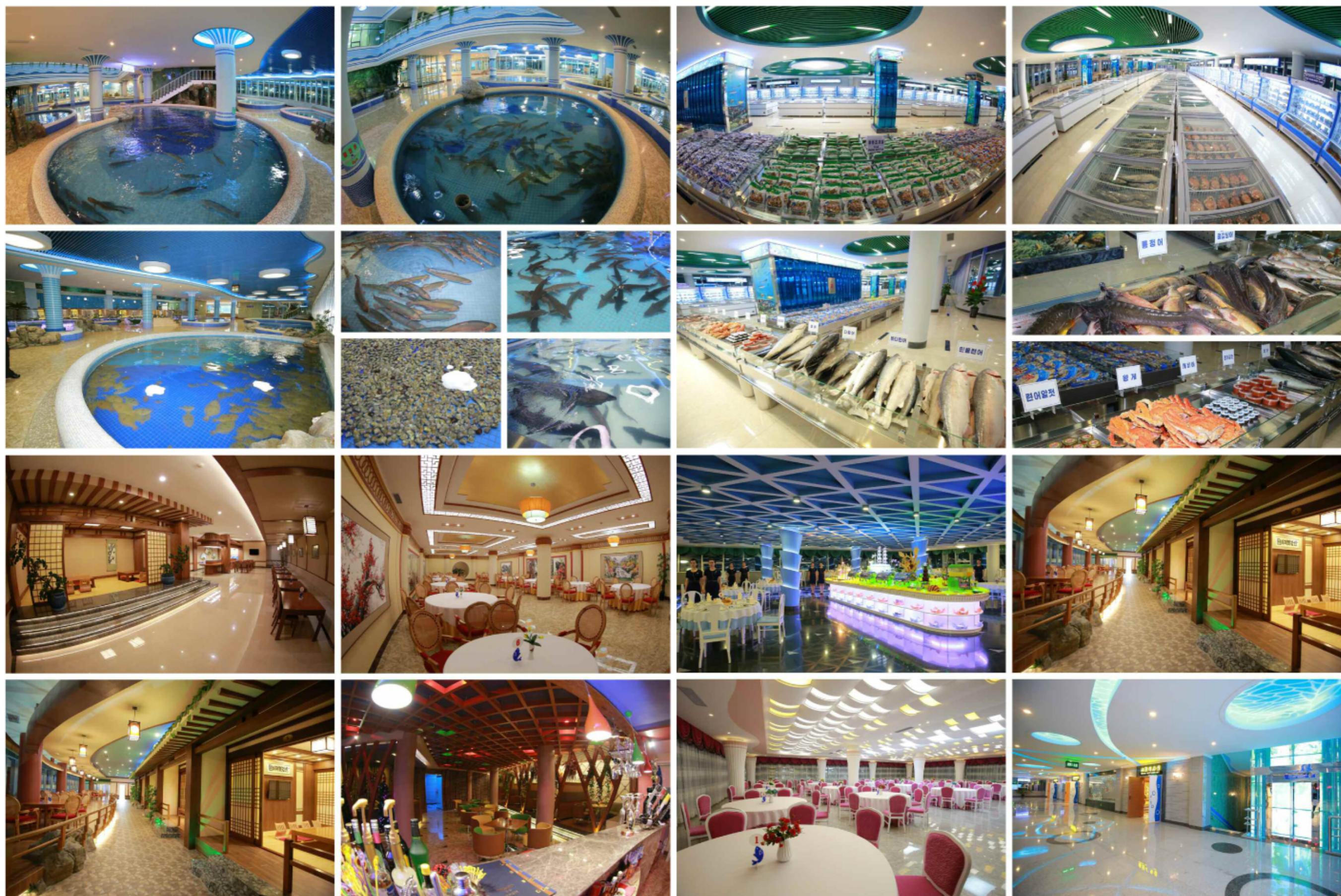
실내롯들에서 유유히 헤엄치는 대중식사실과 가족식사실,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 이곳을 찾는 철갑상어, 통정어, 렌어, 철색송어 민족료리식사실을 비롯한 여러 식인민들이 자그마한 불편도 느끼지 를 비롯한 고급어족들과 식당의 사실들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근로 않도록 봉사활동을 깐지고 섬세하게 특성에 맞게 꾸려진 가공품매대들 자들이 가족들과 함께 와서 식사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수산물료리의 질을 높이는데 대중식사실과 가족식사실,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 이곳을 찾는 철갑상어, 통정어, 렌어, 철색송어 민족료리식사실을 비롯한 여러 식인민들이 자그마한 불편도 느끼지 를 비롯한 고급어족들과 식당의 사실들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근로 않도록 봉사활동을 깐지고 섬세하게 특성에 맞게 꾸려진 가공품매대들 자들이 가족들과 함께 와서 식사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구체적인 과업들을 어머니당의 은정속에 솟아난 서나서는 구체적인 과업들을 어머니당의 은정속에 솟아난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은 근로자들의 기쁨을 더해 주며 누구나 대동강반의 명당자리에 또 즐겨 찾는 인민의 봉사기지로 는 대동강반의 명당자리에 또 즐겨 찾는 인민의 봉사기지로

을 보시면서 우리 인민들이 사철하고 세계 여러 나라 음식들도 맛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하나의 인민봉사기지가 될 때 흥성일 것이다.

본사정치보도반



정 론

당 이 결 심 하 면 우 리 는 무 조 건 한 다

조국의 날바다에 기적의 창조물을 안아올린 고암 – 담촌철길건설자들의 영웅적 위훈을 전하며

고암, 담촌, 송천반도, 석천만…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모르는 사람이라 많았던 지명들이 있다. 허나 지금은 누구나 안다.

지난 5월 30일 현지에서는 동해지구

석천만의 날바다를 횃단하는 고암–담촌철

길 개통식이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우리 나라의 첫 해상철길, 결코 그 길이

나 사명만으로 의미를 다 해석할 수 없다.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결심 하시면 우리는 무조건 한다!》,

석천만의 날바다를 횃단한 해상철길에

우리의 건설자들이 보완듯이 새긴 글방,

그것은 이 기적의 창조물을 떠받든 조선의

정신, 조선의 기상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가슴치는 증명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결심하시

면 산도 끊기고 바다도 메우는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 통계급의 강용한 기상,

위대한 조선인민의 혁척의 신념을 서 끄른

날바다에 박은 도동당시대의 또 하나의

기념비가 솟아오른 것이다.

* * *

멋있소, 불수록 장관이요, 하나님의 선경이

고바다의 생궤도요! 라고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기쁨에 넘치신 음성 가슴을 광활

하는 석천만라에 우리는 서 있다.

저 하늘의 헤빛 엇갈리며 각다 높부신 빛발

아낌없이 쏟고 만단사연 풀어안은 조국의

바다로 결정에 겨워 설ينا!

우리 공화국의 역사에는 얼마나 눈부신

사변과 기적들이 아로새겨졌다.

공화국 창건 70돐을 맞는 뜻깊은

2018년의 해상철길에 창조한 새 광

나리의 첫 해상철길, 불수록 가슴이 벅

차고 심장이 높뀐다.

남다라를 가로지른 철길이라는 동해에 걸린

쌍무지개이거듯, 푸른 잔디들파 이제로

운장식판들로 단장된 호안은 도시의 유보

도 끝불케하고 산뜻한 가로등들이 풀지

어서 해상철길이라는 한폭의 그림 같다.

담촌철길도 고암–담촌철길을

펼쳤었다. 직선으로 가면 불과 몇리밖에 안

되는 길을 수십리나에 둘다니던 것이 이제는 옛말로 되었다고, 눈뜨고도 꿈을 꾸는 것 같다고 결정을 머치는 이 고장 사람들의

이야기 들을수록 마음설레인다.

새 차들도 생기고 산기슭에는 철도종업

원들의 이단한 마음도 생겨났다. 철길의 한

끝에 이르면 담촌철길소대 및 운전지휘원

실이 당길하게 숫이 또 눈부리며 끝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주체의 사회주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며

선군로동의 령도따라 나야가는 우리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입니다.》

한걸음 또 한걸음...

렬차를 타고 달리면 불과 몇분이면 통과

할 이 철길에 우리의 고암–담촌철길건설

작들은 3년세월의 피와 땀을 바치었다.

잠들지 못하고 설매이는 저 바다는

무엇을 쉽없이 속삭이는가. 혁척의 궤도를

떠받든 이로 뛰어 스민 이야기는 천이언

가, 만이언가.

힘은 둘었어도 많은 경험을 쌓았을 뿐이

리고, 자세의 힘으로 건설한 보람이 있다고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깊은 말씀이

동해의 푸른 물결우에 실려 광활 가슴을

두드린다.

단순한 하나의 철길이 아니며 무심한 두

줄기 궤도가 아니다. 자력갱생의 대로로

시작부터 끌까지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로 앙아울린 명실공히 자력갱생의 창조물,

자력자강의 궤도가 힘차게 뻗어간 것이다.

밤이 없었던 석천만의 3년세월, 새 광

법의 완성을 위해 열띤 투쟁을 벌리던 그 기

속은 어이하고 바다한 북판에 뛰어온 우수에서

직접 방송미아크를 들어 잡은 둘격대지휘관

이 전투원들의 심장에 물을 다는 혁선운동의

포화를 터치며 그곳은 또 어인간다.

자력갱생의 궤도는 과학기술의 힘으로만

여겨지지 못한다. 이 힘은 원수님의 앞길에

놓여 갈수 있다!

우리는 조국의 새 철길에 어려오는 이 귀

중한 철길을 세울 것이다.

세계의 시대는 파악자, 기술자, 기동공들은

물론이고 돌격대원들과 일군들도 누구나 발

굴을 하고 착상을 하였다는 이야기가 어디

서나 헌전을 털어온다.

여기에는 과학기술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다. 그들이 고생을 많이

할 것이다.

우리의 첫 해상철길은

우리의 기술이다. 그 기술은

황해북도라고 하면 사람들은 폐성강을 먼저 생각한다. 그것은 폐성강발전소가 황해북도의 생명선으로 되기 때문이다.

폐성강청년 1호발전소로부터 2호, 3호, 4호발전소들이 이미 훌륭히 완공되고 지금은 폐성강청년 5호발전소건설이 마감단계에서 치밀하게 추진되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자강제일주지를 높이 들고나가야 합니다.』

폐성강발전소청년돌격대원들

여기에 인민사랑의 바다가 있다

평양~개성고속도로를 따라 금천군을 거쳐 폐성강청년 1호발전소에로 가는 길은 편리하고 멀었다. 배모양으로 생긴 큰 바위가 있다는 데 봉리의 명 ghé는 비탈이 심하였다.

산넘어 산이라고 가도 가도 끝이 없을듯 하면 가파로운 형길이 끝나고 날카로운 산길에에 아담하게 차리잡은 폐성강청년 1호발전소 톨격대원들의 살림집지구가 우리의 눈앞에 안겨들었다.

그 너머로 우리 기행길의 첫 목적지인 폐성강청년 1호발전소가 바라보였다.

『일찌기 폐성강에 계단식 발전소들을 일찌기 끌어온 형길을 찾으시면 아카시아꽃향기 속에 모시고 있어 수천그루나 되는 아카시아나무들을 심고 가꾸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 장군님께서 떠나면서 아카시아나무들을 심고 가꾸었다고 한다.

그날 아침에도 우리 장군님께서는 아카시아나무에 편 히약 서리꽃이 미처 아카시아꽃과 보기 좋다고 하시면서 톨격대원들의 기록한 마음을 헤아려주었다. 지금도 이 나무들을 보면 아카시아장군님의 헌지지도로 정이 눈앞에 삼삼이 어려운다고

기 행

자력 자강의 정신이 놓은 귀중한 창조물

과 도안의 일군들과 인민들이 1호, 2호, 3호, 4호발전소들을 일떠세운 나날들은 자력갱생의 전리를 배우는 하나님의 대학을 나오는 과정이었다.

자력자강의 투쟁 속에서 억세여지고 보다 강해진 황해북도인민들의 정신력, 끊임없이 이어지는 기적창조의 영웅사사시를 세상에 전하고 싶어 우리는 폐성호물길을 따라 기행의 길에 올랐다.

황해북도에는 대인공호수가 새로 생겨났다.

하늘높이 치솟은 거창한 언제와 산허리를 휘감으며 망망하게 펼쳐진 대인공호수, 정갈하게 다듬어진 물길을 따라 폐성강청년 2호발전소로 용용히 굽이쳐가는 맑은 물로 하여 발전소언제의 주변경치는 한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워졌다.

바로 여기서부터 폐성호물길이 시작되는 것이다.

폐성강청년 2호발전소를 향하여 기행길을 이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은 나에게 들픈듯이었다.

폐성 강의

폐성강청년 2호발전소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산길을 펼쳐놓았던 언제에 모시고 있어 수종 1호굴을 볼수 있었다.

일매지게 뻗어간 물길, 계단식으로 규모있게 쌓아올린 석축은 세월이 흘렀지만 어느 한 구석도 손색이 없었다.

폐성강청년 2호발전소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산길을 펼쳐놓았던 언제에 모시고 있어 수종 1호굴을 볼수 있었다.

폐성강청년 2호발전소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산길을 펼쳐놓았던 언제에 모시고 있어 수종 1호굴을 볼수 있었다.

폐성강청년 2호발전소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산길을 펼쳐놓았던 언제에 모시고 있어 수종 1호굴을 볼수 있다.

폐성강청년 2호발전소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산길을 펼쳐놓았던 언제에 모시고 있어 수종 1호굴을 볼수 있다.

폐성강청년 2호발전소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산길을 펼쳐놓았던 언제에 모시고 있어 수종 1호굴을 볼수 있다.

폐성강청년 2호발전소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산길을 펼쳐놓았던 언제에 모시고 있어 수종 1호굴을 볼수 있다.

폐성강청년 2호발전소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산길을 펼쳐놓았던 언제에 모시고 있어 수종 1호굴을 볼수 있다.

폐성강청년 2호발전소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산길을 펼쳐놓았던 언제에 모시고 있어 수종 1호굴을 볼수 있다.

폐성강청년 2호발전소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산길을 펼쳐놓았던 언제에 모시고 있어 수종 1호굴을 볼수 있다.

폐성강청년 2호발전소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산길을 펼쳐놓았던 언제에 모시고 있어 수종 1호굴을 볼수 있다.

폐성강청년 2호발전소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산길을 펼쳐놓았던 언제에 모시고 있어 수종 1호굴을 볼수 있다.

폐성강청년 2호발전소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산길을 펼쳐놓았던 언제에 모시고 있어 수종 1호굴을 볼수 있다.

폐성강청년 2호발전소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산길을 펼쳐놓았던 언제에 모시고 있어 수종 1호굴을 볼수 있다.

폐성강청년 2호발전소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산길을 펼쳐놓았던 언제에 모시고 있어 수종 1호굴을 볼수 있다.

폐성강청년 2호발전소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산길을 펼쳐놓았던 언제에 모시고 있어 수종 1호굴을 볼수 있다.

폐성강청년 2호발전소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산길을 펼쳐놓았던 언제에 모시고 있어 수종 1호굴을 볼수 있다.

폐성강청년 2호발전소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산길을 펼쳐놓았던 언제에 모시고 있어 수종 1호굴을 볼수 있다.

폐성강청년 2호발전소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산길을 펼쳐놓았던 언제에 모시고 있어 수종 1호굴을 볼수 있다.

폐성강청년 2호발전소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산길을 펼쳐놓았던 언제에 모시고 있어 수종 1호굴을 볼수 있다.

폐성강청년 2호발전소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산길을 펼쳐놓았던 언제에 모시고 있어 수종 1호굴을 볼수 있다.

폐성강청년 2호발전소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산길을 펼쳐놓았던 언제에 모시고 있어 수종 1호굴을 볼수 있다.

폐성강청년 2호발전소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산길을 펼쳐놓았던 언제에 모시고 있어 수종 1호굴을 볼수 있다.

폐성강청년 2호발전소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산길을 펼쳐놓았던 언제에 모시고 있어 수종 1호굴을 볼수 있다.

폐성강청년 2호발전소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산길을 펼쳐놓았던 언제에 모시고 있어 수종 1호굴을 볼수 있다.

폐성강청년 2호발전소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산길을 펼쳐놓았던 언제에 모시고 있어 수종 1호굴을 볼수 있다.

폐성강청년 2호발전소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산길을 펼쳐놓았던 언제에 모시고 있어 수종 1호굴을 볼수 있다.

폐성강청년 2호발전소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산길을 펼쳐놓았던 언제에 모시고 있어 수종 1호굴을 볼수 있다.

폐성강청년 2호발전소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산길을 펼쳐놓았던 언제에 모시고 있어 수종 1호굴을 볼수 있다.

폐성강청년 2호발전소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산길을 펼쳐놓았던 언제에 모시고 있어 수종 1호굴을 볼수 있다.

폐성강청년 2호발전소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산길을 펼쳐놓았던 언제에 모시고 있어 수종 1호굴을 볼수 있다.

폐성강청년 2호발전소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산길을 펼쳐놓았던 언제에 모시고 있어 수종 1호굴을 볼수 있다.

폐성강청년 2호발전소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산길을 펼쳐놓았던 언제에 모시고 있어 수종 1호굴을 볼수 있다.

폐성강청년 2호발전소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산길을 펼쳐놓았던 언제에 모시고 있어 수종 1호굴을 볼수 있다.

폐성강청년 2호발전소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산길을 펼쳐놓았던 언제에 모시고 있어 수종 1호굴을 볼수 있다.

폐성강청년 2호발전소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산길을 펼쳐놓았던 언제에 모시고 있어 수종 1호굴을 볼수 있다.

폐성강청년 2호발전소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산길을 펼쳐놓았던 언제에 모시고 있어 수종 1호굴을 볼수 있다.

폐성강청년 2호발전소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산길을 펼쳐놓았던 언제에 모시고 있어 수종 1호굴을 볼수 있다.

폐성강청년 2호발전소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산길을 펼쳐놓았던 언제에 모시고 있어 수종 1호굴을 볼수 있다.

폐성강청년 2호발전소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산길을 펼쳐놓았던 언제에 모시고 있어 수종 1호굴을 볼수 있다.

폐성강청년 2호발전소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산길을 펼쳐놓았던 언제에 모시고 있어 수종 1호굴을 볼수 있다.

폐성강청년 2호발전소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산길을 펼쳐놓았던 언제에 모시고 있어 수종 1호굴을 볼수 있다.

폐성강청년 2호발전소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산길을 펼쳐놓았던 언제에 모시고 있어 수종 1호굴을 볼수 있다.

폐성강청년 2호발전소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산길을 펼쳐놓았던 언제에 모시고 있어 수종 1호굴을 볼수 있다.

폐성강청년 2호발전소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산길을 펼쳐놓았던 언제에 모시고 있어 수종 1호굴을 볼수 있다.

폐성강청년 2호발전소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산길을 펼쳐놓았던 언제에 모시고 있어 수종 1호굴을 볼수 있다.

폐성강청년 2호발전소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산길을 펼쳐놓았던 언제에 모시고 있어 수종 1호굴을 볼수 있다.

폐성강청년 2호발전소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산길을 펼쳐놓았던 언제에 모시고 있어 수종 1호굴을 볼수 있다.

폐성강청년 2호발전소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산길을 펼쳐놓았던 언제에 모시고 있어 수종 1호굴을 볼수 있다.

폐성강청년 2호발전소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산길을 펼쳐놓았던 언제에 모시고 있어 수종 1호굴을 볼수 있다.

폐성강청년 2호발전소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산길을 펼쳐놓았던 언제에 모시고 있어 수종 1호굴을 볼수 있다.

폐성강청년 2호발전소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산길을 펼쳐놓았던 언제에 모시고 있어 수종 1호굴을 볼수 있다.

폐성강청년 2호발전소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산길을 펼쳐놓았던 언제에 모시고 있어 수종 1호굴을 볼수 있다.

폐성강청년 2호발전소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산길을 펼쳐놓았던 언제에 모시고 있어 수종 1호굴을 볼수 있다.

폐성강청년 2호발전소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산길을 펼쳐놓았던 언제에 모시고 있어 수종 1호굴을 볼수 있다.

폐성강청년 2호발전소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산길을 펼쳐놓았던 언제에 모시고 있어 수종 1호굴을 볼수 있다.

폐성강청년 2호발전소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산길을 펼쳐놓았던 언제에 모시고 있어 수종 1호굴을 볼수 있다.

폐성강청년 2호발전소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산길을 펼쳐놓았던 언제에 모시고 있어 수종 1호굴을 볼수 있다.

폐성강청년 2호발전소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산길을 펼쳐놓았던 언제에 모시고 있어 수종 1호굴을 볼수 있다.

폐성강청년 2호발전소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산길을 펼쳐놓았던 언제에 모시고 있어 수종 1호굴을 볼수 있다.

폐성강청년 2호발전소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산길을 펼쳐놓았던 언제에 모시고 있어 수종 1호굴을 볼수 있다.

폐성강청년 2호발전소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산길을 펼쳐놓았던 언제에 모시고 있어 수종 1호굴을 볼수 있다.

폐성강청년 2호발전소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산길을 펼쳐놓았던 언제에 모시고 있어 수종 1호굴을 볼수 있다.

폐성강청년 2호발전소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산길을 펼쳐놓았던 언제에 모시고 있어 수종 1호굴을 볼수 있다.

폐성강청년 2호발전소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산길을 펼쳐놓았던 언제에 모시고 있어 수종 1호굴을 볼수 있다.

폐성강청년 2호발전소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산길을 펼쳐놓았던 언제에 모시고 있어 수종 1호굴을 볼수 있다.

폐성강청년 2호발전소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산길을 펼쳐놓았던 언제에 모시고 있어 수종 1호굴을 볼수 있다.

폐성강청년 2호발전소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산길을 펼쳐놓았던 언제에 모시고 있어 수종 1호굴을 볼수 있다.

폐성강청년 2호발전소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산길을 펼쳐놓았던 언제에 모시고 있어 수종 1호굴을 볼수 있다.

폐성강청년 2호발전소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산길을 펼쳐놓았던 언제에 모시고 있어 수종 1호굴을 볼수 있다.

폐성강청년 2호발전소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산길을 펼쳐놓았던 언제에 모시고 있어 수종 1호굴을 볼수 있다.

폐성강청년 2호발전소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산길을 펼쳐놓았던 언제에 모시고 있어 수종 1호굴을 볼수 있다.

폐성강청년 2호발전소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산길을 펼쳐놓았던 언제에 모시고 있어 수종 1호굴을 볼수 있다.

폐성강청년

적폐의 총본산 《자유한국당》은 멸족되어야 한다

민족화협의회 고발장

반역정치, 부정부패로 악명 높은 『새누리당』은 전현역적 박근혜와 한바리에 실려 역사의 무덤에 처박힐 운명에 처하게 되자 『황금탈락』, 『쇄신도약』, 『과거결별』을 윤운하며 『자유한국당』으로 간판을 같이던지 1년 4개월이 된다.

이 기간 보수정당의 썩은 체질과 본색은 달라지기는커녕 더 추악해졌다.

박근혜의 비참한 종말에서 용당

인간추물들만 골라모은 〈오물당〉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역도를 역사의 심판대에 끌어내기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거세한 초불항쟁에 의해 박근혜에 반핵소주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글에 맞은 『새누리당』에들은 2017년 2월 당명을 『자유한국당』으로 같아지는 늘음을 범리였다.

살길 찾기 위한 궁지에 이기 바로 『박근혜의 사단』, 『박근혜 꿈범의 짙지를 떠버리는 것이었던 것이다.

보수파들이 당명을 바꾸면서까지 박근혜 색깔을 지우고 천주에 벗어나 못 퇴짜를 가려보려고 하였지만 오물을 아무리 비단보자기에 감싼다 고 하여도 거기에서 풍기는 악취는 없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극악한 사대미국 노, 딕독한 동족대결파, 머더운 부정 부폐전파자들이 한데 모여 우글대는 인간오물장이다.

막말세조기, 대결정신병자, 부정부 폐왕초, 색광 등 온갖 오명을 쓰고 있는 대표 홍준표만 보아도 박근혜, 러명박역도와 조금도 짹지지 않는 인간추물이다.

현내대 표 김성태도 지난해 『대통령』전거를 앞두고 『비른정당』에서 탈당하여 제임으로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일련 정당이라고 하였던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기어들어간 것으로 하여 『박쥐』라는 별명과 함께 각 계층으로부터 풍자노래 『새타령』을 『선물』로 받은 카멜레온이다.

『자유한국당』의 중진으로 차지하는 김무성은 삼복칠에 비자립을 뿐이며 남조선강검 미군사령관을 업

한 교훈을 찾을 대신 구태의연하게 시대의 지향에 역행하며 온갖 못된 짓만 골라하여 민심의 완전한 배척 속에 『꽉 썩어문드러지자』는 지탄을 받고있는것이 바로 『자유한국당』이다.

민족화협의회는 남조선사회의 암적존재이고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 자주와 통일을 가로막는 방해물인 『자유한국당』의 추악한 정체를 단면하여 고발한다.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나쁜 놈들』, 『깡 같은 놈들』이라고 입에 담지 못할 생각까지 서슴없이 해했다.

『자유한국당』것들이야말로 몽뚱이에 조선사람의 피가 아니라 오랑캐의 드물이 흐르고있는 천하의 매국노들이었다.

분렬에 명줄을 건 〈대결당〉

『북은 주적』, 『자유민주주의 체제화의 통일』, 『공산동일은 목숨을 걸고 반대할 것』…

이것이 바로 동족을 대하는 『자유한국당』파들의 대결판이다.

최고위원 김태홍 역시 2012년 18년 『대통령』전거에 박근혜 역도의 선거운동본부에서 공보위원으로 활약한 친박근혜 패였고 그후에는 홍준표에게 가불이 최고위원감투까지 쓰면서 운전아침 가이드이다.

이들은 숭고한 동포애와 뜨거운 통일애국의 용지가 비껴있는 우리의 역사적인 신년사에 대해 남남갈등을 조제하고 『한·미』갈등을 노리는 술책, 『안보』를 무너뜨리는 전략, 전형적인 환경향연술, 맥무장시간벌기용이라고 험등으로서 『대북화구걸』을 멈추고 대북제재와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암탈을 부리셨다.

지난 1월 9일 북남고위급회담이 성사되었을 때 『회담개최가 성과를 가져다줄것이라는 친밀화운상은 금물이다』.』고 『북·미 대북제재를 피하기 위한 은신처로 남북회담을 암호화 했다.』고 암탈을 불어렸다.

그리고 북남고위급회담에서 온 민족을 기쁘게 하는 공통보도문이 제작되자 『분구가 북의 신년사와 뉴사하다.』, 『회의 강으로 가득한 내용뿐이다.』는 가시돌인 암담을 늘어놓으며 미친처럼 날뛰었다.

제23차 겨울철을 뛰어경기대회가 민족공동의 대사로 성과적으로 진행되며 되자 반공화국대결집회를 련이에 떨려뛰고 『평양올림픽으로 되어가는 평창을 뛰어경기대회를 끝내 한다.』고 『북·미 대북제재로 진행되었을 때에는 남북이 한반도의 현실을 엎을 수 있다.』, 『회개가 없는 알맹이가 빠진 회담』, 『북의 계략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고 채워되었을뿐 아니라 판문점선언을 지지하는 『국회』 결의안색에도 『결의안내용에 북핵폐기문구가 없다.』고 결고를 끝내 고로았다.

남조선 각계총이 『자유한국당』에 수여되며 조아리는 홍대표는 일봉당 지역 위원장을 련상시킨다.』고 『황국신민이라도 된다면 같다.』고 단죄하였다.

남조선인들은 전문가들은 남조선에서 레대적으로 『자유한국당』을 불렀던 그들의 운명은 비참하였다, 미승만의 『자유당』, 『자유민주연합』 등이 와해되거나 다른 정당에 흡수되었다고 하면서 홍준표의 『자유한국당』도 그 앞날이 순탄치 않을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남조선인들은 민족화협의회를

기쁘게 하는 『아베일에서 한없이 조아리는 홍대표는 일봉당 지역 위원장을 련상시킨다.』고 『황국신민이라도 된다면 같다.』고 단죄하였다.

남조선 각계총이 『자유한국당』에 수여되며 조아리는 홍대표는 일봉당 지역 위원장을 련상시킨다.』고 『황국신민이라도 된다면 같다.』고 단죄하였다.

남조선 각계총이 『자유한국당』에 수여되며 조아리는 홍대표는 일봉당 지역 위원장을 련상시킨다.』고 『황국신민이라도 된다면 같다.』고 단죄하였다.

남조선 각계총이 『자유한국당』에 수여되며 조아리는 홍대표는 일봉당 지역 위원장을 련상시킨다.』고 『황국신민이라도 된다면 같다.』고 단죄하였다.

남조선 각계총이 『자유한국당』에 수여되며 조아리는 홍대표는 일봉당 지역 위원장을 련상시킨다.』고 『황국신민이라도 된다면 같다.』고 단죄하였다.

남조선 각계총이 『자유한국당』에 수여되며 조아리는 홍대표는 일봉당 지역 위원장을 련상시킨다.』고 『황국신민이라도 된다면 같다.』고 단죄하였다.

남조선 각계총이 『자유한국당』에 수여되며 조아리는 홍대표는 일봉당 지역 위원장을 련상시킨다.』고 『황국신민이라도 된다면 같다.』고 단죄하였다.

남조선 각계총이 『자유한국당』에 수여되며 조아리는 홍대표는 일봉당 지역 위원장을 련상시킨다.』고 『황국신민이라도 된다면 같다.』고 단죄하였다.

남조선 각계총이 『자유한국당』에 수여되며 조아리는 홍대표는 일봉당 지역 위원장을 련상시킨다.』고 『황국신민이라도 된다면 같다.』고 단죄하였다.

남조선 각계총이 『자유한국당』에 수여되며 조아리는 홍대표는 일봉당 지역 위원장을 련상시킨다.』고 『황국신민이라도 된다면 같다.』고 단죄하였다.

남조선 각계총이 『자유한국당』에 수여되며 조아리는 홍대표는 일봉당 지역 위원장을 련상시킨다.』고 『황국신민이라도 된다면 같다.』고 단죄하였다.

남조선 각계총이 『자유한국당』에 수여되며 조아리는 홍대표는 일봉당 지역 위원장을 련상시킨다.』고 『황국신민이라도 된다면 같다.』고 단죄하였다.

남조선 각계총이 『자유한국당』에 수여되며 조아리는 홍대표는 일봉당 지역 위원장을 련상시킨다.』고 『황국신민이라도 된다면 같다.』고 단죄하였다.

남조선 각계총이 『자유한국당』에 수여되며 조아리는 홍대표는 일봉당 지역 위원장을 련상시킨다.』고 『황국신민이라도 된다면 같다.』고 단죄하였다.

남조선 각계총이 『자유한국당』에 수여되며 조아리는 홍대표는 일봉당 지역 위원장을 련상시킨다.』고 『황국신민이라도 된다면 같다.』고 단죄하였다.

남조선 각계총이 『자유한국당』에 수여되며 조아리는 홍대표는 일봉당 지역 위원장을 련상시킨다.』고 『황국신민이라도 된다면 같다.』고 단죄하였다.

남조선 각계총이 『자유한국당』에 수여되며 조아리는 홍대표는 일봉당 지역 위원장을 련상시킨다.』고 『황국신민이라도 된다면 같다.』고 단죄하였다.

남조선 각계총이 『자유한국당』에 수여되며 조아리는 홍대표는 일봉당 지역 위원장을 련상시킨다.』고 『황국신민이라도 된다면 같다.』고 단죄하였다.

남조선 각계총이 『자유한국당』에 수여되며 조아리는 홍대표는 일봉당 지역 위원장을 련상시킨다.』고 『황국신민이라도 된다면 같다.』고 단죄하였다.

남조선 각계총이 『자유한국당』에 수여되며 조아리는 홍대표는 일봉당 지역 위원장을 련상시킨다.』고 『황국신민이라도 된다면 같다.』고 단죄하였다.

남조선 각계총이 『자유한국당』에 수여되며 조아리는 홍대표는 일봉당 지역 위원장을 련상시킨다.』고 『황국신민이라도 된다면 같다.』고 단죄하였다.

남조선 각계총이 『자유한국당』에 수여되며 조아리는 홍대표는 일봉당 지역 위원장을 련상시킨다.』고 『황국신민이라도 된다면 같다.』고 단죄하였다.

남조선 각계총이 『자유한국당』에 수여되며 조아리는 홍대표는 일봉당 지역 위원장을 련상시킨다.』고 『황국신민이라도 된다면 같다.』고 단죄하였다.

남조선 각계총이 『자유한국당』에 수여되며 조아리는 홍대표는 일봉당 지역 위원장을 련상시킨다.』고 『황국신민이라도 된다면 같다.』고 단죄하였다.

남조선 각계총이 『자유한국당』에 수여되며 조아리는 홍대표는 일봉당 지역 위원장을 련상시킨다.』고 『황국신민이라도 된다면 같다.』고 단죄하였다.

남조선 각계총이 『자유한국당』에 수여되며 조아리는 홍대표는 일봉당 지역 위원장을 련상시킨다.』고 『황국신민이라도 된다면 같다.』고 단죄하였다.

남조선 각계총이 『자유한국당』에 수여되며 조아리는 홍대표는 일봉당 지역 위원장을 련상시킨다.』고 『황국신민이라도 된다면 같다.』고 단죄하였다.

남조선 각계총이 『자유한국당』에 수여되며 조아리는 홍대표는 일봉당 지역 위원장을 련상시킨다.』고 『황국신민이라도 된다면 같다.』고 단죄하였다.

남조선 각계총이 『자유한국당』에 수여되며 조아리는 홍대표는 일봉당 지역 위원장을 련상시킨다.』고 『황국신민이라도 된다면 같다.』고 단죄하였다.

남조선 각계총이 『자유한국당』에 수여되며 조아리는 홍대표는 일봉당 지역 위원장을 련상시킨다.』고 『황국신민이라도 된다면 같다.』고 단죄하였다.

남조선 각계총이 『자유한국당』에 수여되며 조아리는 홍대표는 일봉당 지역 위원장을 련상시킨다.』고 『황국신민이라도 된다면 같다.』고 단죄하였다.

남조선 각계총이 『자유한국당』에 수여되며 조아리는 홍대표는 일봉당 지역 위원장을 련상시킨다.』고 『황국신민이라도 된다면 같다.』고 단죄하였다.

남조선 각계총이 『자유한국당』에 수여되며 조아리는 홍대표는 일봉당 지역 위원장을 련상시킨다.』고 『황국신민이라도 된다면 같다.』고 단죄하였다.

남조선 각계총이 『자유한국당』에 수여되며 조아리는 홍대표는 일봉당 지역 위원장을 련상시킨다.』고 『황국신민이라도 된다면 같다.』고 단죄하였다.

남조선 각계총이 『자유한국당』에 수여되며 조아리는 홍대표는 일봉당 지역 위원장을 련상시킨다.』고 『황국신민이라도 된다면 같다.』고 단죄하였다.

남조선 각계총이 『자유한국당』에 수여되며 조아리는 홍대표는 일봉당 지역 위원장을 련상시킨다.』고 『황국신민이라도 된다면 같다.』고 단죄하였다.

남조선 각계총이 『자유한국당』에 수여되며 조아리는 홍대표는 일봉당 지역 위원장을 련상시킨다.』고 『황국신민이라도 된다면 같다.』고 단죄하였다.

남조선 각계총이 『자유한국당』에 수여되며 조아리는 홍대표는 일봉당 지역 위원장을 련상시킨다.』고 『황국신민이라도 된다면 같다.』고 단죄하였다.

남조선 각계총이 『자유한국당』에 수여되며 조아리는 홍대표는 일봉당 지역 위원장을 련상시킨다.』고 『황국신민이라도 된다면 같다.』고 단죄하였다.

남조선 각계총이 『자유한국당』에 수여되며 조아리는 홍대표는 일봉당 지역 위원장을 련상시킨다.』고 『황국신민이라도 된다면 같다.』고 단죄하였다.

남조선 각계총이 『자유한국당』에 수여되며 조아리는 홍대표는 일봉당 지역 위원장을 련상시킨다.』고 『황국신민이라도 된다면 같다.』고 단죄하였다.

남조선 각계총이 『자유한국당』에 수여되며 조아리는 홍대표는 일봉당 지역 위원장을 련상시킨다.』고 『황국신민이라도 된다면 같다.』고 단죄하였다.

남조선 각계총이 『자유한국당』에 수여되며 조아리는 홍대표는 일봉당 지역 위원장을 련상시킨다.』고 『황국신민이라도 된다면 같다.』고 단죄하였다.

남조선 각계총이 『자유한국당』에 수여되며 조아리는 홍대표는 일봉당 지역 위원장을 련상시킨다.』고 『황국신민이라도 된다면 같다.』고 단죄하였다.

남조선 각계총이 『자유한국당』에 수여되며 조아리는 홍대표는 일봉당 지역 위원장을 련상시킨다.』고 『황국신민이라도 된다면 같다.』고 단죄하였다.

남조선 각계총이 『자유한국당』에 수여되며 조아리는 홍대표는 일봉당 지역 위원장을 련상시킨다.』고 『황국신민이라도 된다면 같다.』고 단죄하였다.

남조선 각계총이 『자유한국당』에 수여되며 조아리는 홍대표는 일봉당 지역 위원장을 련상시킨다.』고 『황국신민이라도 된다면 같다.』고 단죄하였다.

남조선 각계총이 『자유한국당』에 수여되며 조아리는 홍대표는 일봉당 지역 위원장을 련상시킨다.』고 『황국신민이라도 된다면 같다.』고 단죄하였다.

남조선 각계총이 『자유한국당』에 수여되며 조아리는 홍대표는 일봉당 지역 위원장을 련상시킨다.』고 『황국신민이라도 된다면 같다.』고 단죄하였다.

남조선 각계총이 『자유한국당』에 수여되며 조아리는 홍대표는 일봉당 지역 위원장을 련상시킨다.』고 『황국신민이라도 된다면 같다.』고 단죄하였다.

남조선 각계총이 『자유한국당』에 수여되며 조아리는 홍대표는 일봉당 지역 위원장을 련상시킨다.』고 『황국신민이라도 된다면 같다.』고 단죄하였다.

남조선 각계총이 『자유한국당』에 수여되며 조아리는 홍대표는 일봉당 지역 위원장을